



보도시점 2026. 9. 14.(월) 배포 2026. 9. 14.(월), 15:30

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인교육센터, 디지털·인공지능(AI)으로 복지 현장 바꾼 ‘사회복무요원 우수 복무사례’ 발굴

- 경인지방병무청과 ‘제7회 아름다운 사회복무요원 사랑나눔 공모전’
공동개최...디지털·인공지능(AI) 기술 접목한 행정 혁신사례 5건 선정

- 한국보건복지인재원(원장 은민수, 이하 인재원) 경인교육센터는 경인지방병무청(청장 배철훈)과 공동으로 ‘2026년 제7회 아름다운 사회복무요원 사랑나눔 공모전’을 개최하고, 총 5건의 우수 복무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.
- 2020년부터 매년 진행하여 올해 7회차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사회복무요원 개인의 전공과 재능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근무기관의 업무 효율화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.
- 올해 최우수상은 수원시 우만1동행정복지센터 주서운 사회복무요원의 ‘어르신 교통비 지원업무, 자동계산 프로그램 개발’이 차지했으며, 우수상에는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한승우 사회복무요원의 ‘인공지능(AI) 활용 시각·음성 통합 자동 호출 시스템 구축’이 선정됐다. 장려상 3건은 ▲과천시가족센터 김준서 요원의 ‘아이돌보미 교통비 자동정산 프로그램 개발’ ▲의왕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정유민 요원의 ‘아동학대 예방교육 자율학습 게임 제작’ ▲수

원시 광고종합사회복지관 이재안 요원의 ‘이동 주차 호출 자동안내 시스템 개발’이 각각 선정되었다.

- 인재원 경인교육센터와 경인지방병무청은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의 근무기관을 직접 방문해 표창장 수여 등 시상식을 열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, 현장의 업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주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.
-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인교육센터 김형호 센터장 직무대리는 “사회복무요원들이 전공과 재능을 살려 공공·복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디지털 및 인공지능(AI) 기술을 접목하여 주도적으로 해결한 점이 매우 뜻 깊었다”며 “앞으로도 경인지방병무청과 사회복무요원 우수 복무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지역 내 확산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

▲ ‘제7회 아름다운 사회복무요원 사랑나눔 공모전’ 최우수상(좌) 및 우수상(우) 수상자 근무기관을 방문하여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. 출처: 한국보건복지인재원

담당 부서	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인교육센터	책임자	센터장	김형호	(031-271-2145)
		담당자	대 리	안소연	(031-271-2148)